

영어 영역

독해 문제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Team 유정우 모의고사의 독해 파트 문항과 해설을 맡은 유정우입니다. 해설에 앞서 제 강의의 핵심 내용 중 독해 기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필자의 생각은 특별하다.

제 인강 첫 부분의 명제이기도 한 이 내용은 글의 주제가 가진 특징을 말합니다. 흔히, 통념비판형 글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여 글을 쓰는 이유는 글에서 말하는 것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생각을 굳이 힘들여 글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와중에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지문의 주제가 되기는 어렵고 이를 기초로 다른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필자의 생각의 특별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전자는 2에서 서술하겠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모순이다”

모순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行動)의 앞뒤가 서로 일치(一致)되지 아니함’을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모순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불일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통념 vs 진실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경우도 이 경우입니다. 예컨대, 겉에서 보기엔 통명스러운 사람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 경우에, 이는 외부와 내부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글의 주제가 될 만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행동만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같지만, 이타적인 행동도 (전체로서의 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나, 우리의 논리적 추론의 귀결과 다르거나, 겉에서 비쳐지는 것과 다른 것 등 그 내용의 중심 요소가 모순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1=2라는 명제보다는 1+1=3이라는 명제가 더 유력하다고 할까요?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글을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2. 관계를 말한다.

필자는 주로 어떤 것(사람, 사물, 사건, 관념 등)과 어떤 것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글의 주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철수라는 남자와 영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둘의 관계는 우리가 지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둘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즉 그 둘의 관계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달은 누군가가 비로소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관계야말로 특별한 생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계를 말하는 언어의 구조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해 말하는 언어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칭 명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즉, 주어와 술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S \rightarrow V]$ 의 구조로 도식화합니다. 이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같이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정리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인과의 구조입니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방법과 목표, 주장과 근거 등 이 모든 것은 모두 판단의 시점만 다를 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거나, 달성하게 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거나, 주장을 근거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X \rightarrow Y]$ 의 구조가 됩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이 인과적 방향성이 명확한 구조에 유용합니다.

$S \rightarrow V$ 의 구조와 $X \rightarrow Y$ 의 구조는 겹쳐질 수 있지만 각각의 구조를 구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의미가 있습니다.(후술 도식 참조)

마지막으로, 공존과 대립의 구조입니다. 이는 독립된 개체($S \rightarrow V$)나 인과적 과정들($X \rightarrow Y$)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크게 A와 B의 대립 또는 A와 B의 공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과학적·철학적 주제의 근본원리를 보는 생각의 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출판물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즉, 과학의 영역에서 힘의 작용으로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의 문제는 공존과 대립 또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을 보는 관점 중 공존해야 살고, 대립하면 죽는다는 생태학적 주장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철학의 영역에서 변증법의 전개과정인 정(正)과 반(反)의 대립 후 합(合)에 이르는 과정도 대립과 공존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하나의 식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1) 대립의 구조

B	$S \rightarrow V$	\rightarrow	$S \rightarrow V$
	X		Y
\updownarrow	\updownarrow		\updownarrow
A	$S \rightarrow V$	\rightarrow	$S \rightarrow V$

(2) 공존의 구조

추상적인 도식이라 이해하기 어렵나요?

영어 영역

ex) 대립의 구도

B	철수 → 집중학습	→	철수 → 90점
	X(집중)		Y(성공)
↕ ↕ ↕			
A	철수 → 산만	→	철수 → 89점
	-X(산만)		-Y(실패)

ex) 공존의 구도

B	철수 → 집중학습	→	철수 → 90점
	X(집중)		Y(성공)
↕ 집중 ⇔ 휴식 → +Y(올 1등급: 대성공)			
A	철수 → 충분휴식	→	철수 → 89점
	-X(휴식)		-Y(실패)

* 위 도식은 휴식만 하면 실패하지만, 집중학습과 휴식을 조화롭게 병행 (= 공존)하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 언급된 세 가지 명제와 세 가지 구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영어지문을 읽으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영역



요지 유형 풀이법

요지 문제는 필자의 중심생각 자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제 유형이 중심생각을 문제제기방식으로 추상화하는 것이고, 제목 유형이 이것을 다시 글의 타이틀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면, 요지 유형은 글의 주제에 대응하는 중심생각의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필자의 생각은 [S → V], [X → V], [A vs B]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 요소와 그들의 관계입니다. 요지유형을 풀 때는 구체적으로 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서 풀어야 합니다. 선지를 고를 때엔 지문에서 얻어진 두 가지 요소와 그들의 관계와 일치하는 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20.

▶ The research that Dr. Fredrickson and others have done demonstrates that(실험·조사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글은 실험·조사의 결과가 보통 원인과 결과 내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X → Y]의 구도로 정리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the extent to which we can generate(→) positive emotions from even everyday activities can determine(→) who flourishes and who doesn’t.(표시된 방향을 기초로 구도를 잡으면 [긍정적인 감정 → 성패를 결정]의 결정의 구도가 됩니다.)

▶ Repeated brief moments of positive feelings can provide(→) a buffer(완충제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X → Y의 구도에서 X는 원인과 수단 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Y는 결과이므로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 다.) against stress and depression and foster(→)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긍정적인 감정 → 스트레스 등을 방어 +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

▶ This is not to say that(이러한 형식은 앞에서 말한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문에선 앞에서 필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잡았으므로 간단히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유형은 요지유형이므로 지문의 내용을 잡는 순간 다른 미사여구나 맥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one must always be positive to be healthy and happy.

▶ Clearly, there are times and situations that naturally result in negative feelings in the most optimistic of individuals.

▶ Worry, sadness, anger and other such “downers” have their place in any normal life.(앞문장의 항상 긍정적인일 수는 없다는 말과 앞문장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도 있다는 말, 이문장의 말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문장은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구별하기 위한 맥락일 뿐입니다.)

▶ But chronically viewing the glass as half-empty is harmful(→)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and inhibits(→) one’s ability to bounce back from life’s inevitable stresses.([부정적 시각 → 좋지 않음]의 구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긍정적인 감정 → 건강에 도움]을 반대의 구도로 말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ps. 마지막 4개의 문장은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양보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일 필요한 없다 → 부정적인일 때도 있고 → 부정적인 것도 자기들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의 구도로 말입니다. 즉, ‘부정적인 경우가 불가피하고 때론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로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 지문의 구도는

[긍정적인 감정 →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

가 됩니다.

- ① 긍정적인 태도가 개인의 건강에 중요하다. 정답입니다.
- ② 낙천적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 ③ 부정적인 감정은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 ④ 스트레스가 육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⑤ 부정적 감정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지문엔 분명히 나와 있는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글의 취지를 잡으면 [부정적 감정 → 좋지 않다]의 구도여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찾아온다고 한 것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일 뿐 필자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은 ①번입니다.

현장에서 ⑤번을 선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지문제는 내용일치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형은 필자의 생각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필자의 생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와 이를 단지 보강하는 맥락 장치들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제 유형 풀이법

주제 문제는 필자의 중심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중심생각이 바로 글의 주제, 즉 주된 문제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주로 서술되는 X나 Y를 문제제기 방식으로 바꾼 선지를 고르는 겁니다. 필자의 생각은 보통 두 개의 요소 X and Y와, 그들의 관계(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① X와 Y, 또는 두 개의 항을 찾아서 그들의 관계를 밝히고 추상화하면 주제문제는 해결됩니다.
ex)[열공 → 성공]의 구도에서 X(즉, 열공)가 주로 서술되었다면 ‘성공의 조건’일 것이고 Y(즉, 성공)가 주로 서술되었다면 ‘열공의 결과’일 겁니다.
- ② 선지 선택 시 각 X, Y항과 방향에 주의하세요.
ex) 본문에서 얻어진 X → Y는 [놀이 → 행복]인데 선지에 ‘놀이의 조건’이 나온다면 [조건 → 놀이]의 구도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21.

▶ History is the chronicle of man’s concern for “place.”([역사 → 장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의 연대기]가 됩니다. 이를 더 줄이면 [역사 - 장소에 대한 관심])

▶ Man has turned to(‘의존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역사가 X가 됩니다.) history in the form of tradition(역사 = 전통) to(‘~하기 위하여’ 이므로 →의 방향을 가집니다.) speak of his rights in relation to the state.(정리하면 [역사(전통) → 국가에 대한 인간의 권리]의 구도가 됩니다. 의문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이 문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 Rights, however(역절! 맥락이 달라지네요. 앞에서 언급한 [역사(전통) → 국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기초로 읽되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mean little if(←) separated

영어 영역

from place.('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와 if에 주목하여 이 문장을 정리하면, [장소 → 권리]의 구도가 됩니다. 앞 맥락에서 언급한 장소와 역사의 연관성이 하나로 합체되어 (국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 Rights can become more or less, they can be differently interpreted, they can be taken away.(이 문장에서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배경지식을 동원해 생각해봅시다. 지역에 따라 날씨와 풍습이 달라지듯이 권리의 보장 여부와 그 정도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앞 문장에서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와 장소라고 했으므로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 Rights are generalities existing weakly or strongly **depending upon**(←) the momentary condition of a particular state and its internal hierarchy of power.([특정한 국가의 일시적 조건 등 → 권리]의 구도입니다. 또 장소가 사라졌네요? 다시 의구심이 생깁니다.)

▶ War or peace, mobilization or disarmament, prosperity or depression are a few of the conditions **determining**(→) the confirmation of rights.([전쟁 등 → 권리]의 구도입니다. 여기서도 또 장소가 사라졌네요? 음...)

▶ Can rights be rooted in a more fundamental ground?(질문을 던집니다. 필자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경우엔 이 질문과 답변을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여 읽어야 합니다.)

▶ “Place”(장소!) places man in the ground of self-consciousness, and it(장소!) **confirms**(→) him in this world in a unique way.(대충 보아도 장소가 뭔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면 장소는 인간의 자기의식의 기초가 되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세상 속에서 확정짓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근거인 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Place” **reveals**(↔) our being here, our human reality.(앞 문장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장소 → 긍정적 기능, 인간의 권리]

① various conditions of ~~traditional~~ rights 다양한 조건을 말했지만 주로 장소를 말한 점에서 various conditions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권리만을 말했을 뿐 전통적 권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는 이글의 X인 장소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Y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place as a ground for(→) human being and his rights 두 가지 요소와 방향이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negative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on humans~~

④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guaranteeing civil right 이 지문의 X는 장소입니다.

⑤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wars 관계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나 전통이 장소와 연결되고 이것이 인간의 권리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일치하지만 요소의 배열이 불일치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 선지를 고른 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필자의 생각을 두 가지 요소와 그들의 관계인 방향성으로 정리하길 추천합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XRVS

제목 유형 풀이법

주제·제목 찾기 문제의 기본은 글의 핵심요소 두 가지와 그들의 관계를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제목은 강조되거나 원인이 되는 부분인 X를 내세우거나 비유적 표현을 한다는 차이만 있어요.

22.

▶ Instead of(구별·대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안쪽과 바깥은 서로 대립되는 것임을 예측하고 읽어야 합니다.) representing something heard about, seen, or otherwise experienced in social life, culture, and nature,(콤마가 많아서 어지럽네요. and를 끝으로 하나의 병렬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정리하기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journalists, commercial artists, and film directors report increasingly what has been seen, heard, or reported before in the media.(명확하진 않지만 듣고, 본 것을 보고하는 것 대신에 보고된 것을 보고한다는 것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못 잡았다면, 다음으로!)

▶ The mediators(사전적 의미는 중재자 정도이나 미디어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므로 ‘미디어 종사자’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have turned to representing representations.(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앞의 report - what has been reported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남이 한말을 다시 한다? 정도가 어렴풋이 잡히나요?)

▶ Instead of narrating,(앞의 Instead of와 동일한 구조인 점을 착안하여 본다면, 뒤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they **narrate** how and why they **narrate**(!); instead of filming, they film that they film the filming.(보고한 것을 보고하고, 영화를 다시 영화화하고.. 결국 이 지문은 이미 만들어진 미디어작품을 다시 재가공?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The news is more and more about what has been reported in the news,(같은 취지입니다.) television shows are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elevision shows,(같은 취지) and even advertising is no longer about products and services but about advertising.(같은 취지!)

▶ The messages of the media are about messages of the media,(같은 취지이고) whose origin has become difficult to trace.(그래서 그 기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S → V의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미디어 → 간접적 보고]

① ~~Breaking News: Vital Conveyor~~(→) of Information

② ~~Diverse Media Report Diverse Information~~ 다양한 매체보고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보고하는 것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오답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이 한번쯤은 지문을 정리하고 선지로 돌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③ ~~Film Industry Challenges the Convention~~

④ Report: **No Longer Any New Story**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⑤ News: The Origin of Multimedia

영어 영역

23.

▶ Traffic enforcement cameras or ‘speed cameras’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Friendswood, Texas, in 1986. In the UK they were introduced in the 1990s. Now they’re ubiquitous. (교통단속 카메라(이하, 교통카메라)의 도입 시기를 말하고, 지금은 이것이 어디에나 있다고 합니다.)

▶ Those in fixed locations are often brightly coloured so that(→) approaching drivers can see them and (if necessary!) slow down.([고정된, 밝은 색 카메라 → 속도 낮추게 함]의 구도가 됩니다.)

▶ That(앞 문장이) makes sense(말이 된다고 합니다. 즉, [고정된, 밝은 색 카메라 → 속도 낮추게 함]이 맞는 말인 것이므로 교통 카메라의 목적은 속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because(근거나 부연을 말하는 맥락도 주절과 사실상 같은 취지를 말합니다.) the aim, contrary to what some activists believe, is not so much(not A, but B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려운 구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to catch speeding drivers as to encourage them to drive more slowly.(그것의 목표 = 교통카메라의 목표 → 느리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절과 같은 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The misunderstanding(그 오해? 앞의 것이 오해인가요? 말이 된다고 해놓고? ... ? 다시 생각해보면, 아하! 앞의 말이 오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카메라)에 대한 오해라고 읽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에서 교통카메라의 목표가 activist들이 믿었던 것과 달랐다고 했으므로 activist들이 믿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is perhaps promoted by the fact that they often have an associated ‘cost recovery’ scheme, so that they are, at least in part, self-financing.(아하! 교통카메라가 비용회복 (= 원가회수)와 연관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앞의 생각과 대립되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문장이고, 다시 전체적 시각으로 보면 교통카메라의 목표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글의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A vs B의 구도가 이글의 구조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 This can make it look as though they’re yet another way to tax motorists,(앞 문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and explains why they remain controversial(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they’re really a tool to encourage motorists to drive responsibly.

[교통카메라를 보는 관점: 감속 vs 세금징수]

- ① Powerful Unmanned(사람이 탑승한) Traffic Police: Speed Cameras
- ② Speed Cameras: For Caution or Financing? 경고(= 감 속) vs 자금조달! 논쟁적 상황을 묘사하는 제목으로 적당합니다.
- ③ Outlaws of the Road: Speed Capturers
- ④ Slow Down: Solution to Car Accident 이 선지는 얼핏 본문의 앞 부분의 관점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교통카메라 → 감속의 구도가 나왔을 뿐 감속 → Y의 구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소가 일치해도 이것이 X인지 Y인지를 파악해서 선지의 약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 ⑤ Taxer on the Highway Wastes Tax

정답은 ②번입니다.

XRVS

문맥상 어휘 유형 풀이법

- 이 유형의 본질은 해당 ‘어휘’가 해당 지문의 ‘문맥’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글을 꼼꼼하고 느리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X \rightarrow Y$ 의 구도로 잡아나가고 이것과 문제된 어휘가 있는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되 전체로서 하나의 항을 기준으로 어휘가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주의할 점은,
- ① 때론 어려운 어휘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세요!
- ② 유의어(대용어 찾기)와 반의어(주어진 단어가 오답인지를 확인하는)
- ③ 기준가 중요하므로 따라따라 하나의 어휘를 폭넓게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도 앞에서 나온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생각하면서 문제된 어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전치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어휘들 주의하세요!. ex) ‘submit A · B는 제출하다’이지만 ‘submit to㉠은 굴복하다’입니다.

29.

▶ In organizations, there is no simple cause-and-effect relationship(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이후에 등장하는 두 가지 요소는 X와 Y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etween introducing a management technique and getting an improved business result.(정리하면, [관리기술 → 경영개선 X]의 구도입니다.)

▶ This([관리기술 → 경영개선 X]) contrasts(대립되므로 이후엔 [관리기술 → 다른 분야 개선 이 일 것이 예측됩니다.) with other spheres of activity where simple causal relationships([관리기술 → 다른 분야 개선 이이 되므로) do seem to (A) operate / malfunction .

▶ Hit the nail with the hammer,(갑자기 못과 망치가 등장합니다. 엉뚱하므로 예시이고, 예시라면 앞 맥락과 동일한 취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기술 → 다른 분야 개선 이]의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and it goes into the wood.([못질을 하면 → 나무에 박힌다], [기술적용 → 성과도출], 앞에서 말한 단순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 Show a dog food, and it salivates.(같은 취지입니다.)

▶ This kind of simple cause-and-effect logic(앞의 말을 받아서) can be (B) [justified / misleading] (앞의 인과관계의 논리가 if라는 조건 하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if applied to the complex(복잡하다? 앞의 ‘단순’을 빗대어 보면 여기는 틀린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world of organizations, where it is difficult(다르다. 즉, 앞과 같이 단순한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인과관계의 논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B의 정답은 misleading입니다.) to trace single effects to single causes.

▶ Uncontrollable outside factors(→) can sink(→) a wonderfully designed team (a hurricane just swept the entire inventory out to sea) or rescue one whose design was so bad that failure seemed assured (the firm that was competing for the contract just went belly-up).(의외의 변수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인과관계와 대조되는 복잡한 상황을

영어 영역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 In organizations, multiple causes(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are operating at the same time(동시에!) and (C) **interacting / contradicting** with each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이 선지는 다양한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interacting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앞에서 이 맥락의 인과관계는 복잡하다고 했으므로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가 대립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다음,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온 it is difficult to trace single effects to single causes 부분을 보면, 어느 한 변수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변수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단순한 대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밖에 ‘단순한 대립보다는 상호작용이 더 복잡할 것’이라는 배경논리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립과 공존의 시각 중 대립과 공존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은 단지 대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대립하는 주체들이 경쟁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결과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복잡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A)	(B)	(C)
①	operate	justified	interacting
②	operate	misleading	interacting
③	operate	misleading	contradicting
④	malfunction	justified	contradicting
⑤	malfunction	justified	interacting

정답은 ②번입니다.



빈칸추론 유형 풀이법

빈칸추론 문제의 풀이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처음부터 읽는 경우입니다. 글의 중심 생각을 X→Y의 구도로 잡아 나가고 맥락이 바뀌는 지점에 주의합니다. 빈칸이 포함된 부분에 도달했을 때 빈칸의 맥락을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 잡은 중심생각과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즉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생각을 빈칸 근처 맥락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문항 해설을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② 빈칸 부분을 먼저 읽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저는 RT라고 부릅니다.(후술하겠습니다) RT가 잘 되면 빈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다만, 항상 RT가 쉽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RT가 잡히지 않는다고 당황치 말고 빈칸 부분을 한 번 더 읽은 뒤 시작한다고 가볍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방법도 문항 해설을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 주의할 점은,

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의 근거(=대응)를 지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문에서 확인하세요.

② 정답의 근거들을 찾았다면 이것들이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빈칸요소(BE)라고 합니다.

③ 이 빈칸요소를 빈칸에 넣되, 빈칸부근의 맥락에 맞게 넣어야 합니다. 선지가 이질적일 땐, 내가 찾은 정답의 근거가 빈칸의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31.

* RT[Relevance Thinking: 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과정]

: In this way,(결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앞 맥락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through**(←) the work and _____ of creative individuals, our world view is constantly being expanded, rewoven, and enriched.

↓

창의적인 개인들의 노력과 () → 시야 확장, 재구성, 발전

* CP[Context & Paraphrasing: 관계항의 시각으로 맥락을 통해 대용어들을 파악하는 과정]

▶ Like shamans or witch doctors, philosophers and scientists have often lived at the edge(끝이라는 것은 암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찾아 철학자들 및 과학자들(이하 철학자 등)과 연결하여 읽어야 합니다.) of society, dedicating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는 철학자 등입니다.) their lives to expanding the

boundaries(끝 = 경계이므로) of knowledge and the ways(암시적 표현을 채워 정리

하면 [철학자 등 → 지식의 경계를 뚫창]의 구도입니다. 우리의 빈칸은 X부분이므로 지식의 경계를 뚫창하게 했던 철학자 등의 특징이나 역할을 찾으면 됩니다.) in which we see, imagine, and

investigate the world.

▶ True philosophy(이 지문 안에서는 진정한 철학 = 철학자 등으로 등치가 가능합니다.) is

characterized by visionary courage(시야를 가진 용기?) and a willingness

to look at the world in new and unfamiliar ways.(아하! 다르게, 새롭게, 익숙

하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필자의 생각은 특별하므로 정답의 근거가 되기에 애매합니다.)

▶ In this way, the greatest philosophers and scientists have

assumed(떠맡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assume은 [어떤 성질을 떠다 → ~을 떠맡다 → ~

으로 추정되다]의 순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a heroic risk.(영웅적 위험부담이라는 표현은 암시

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명시적 표현을 찾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 Certainly, some have risked(!) their very lives(삶을 걸었다?) by

asking unsettling questions or by holding unconventional views.

▶ Like a shaman’s journey to the otherworld, the heroic quest(영

웅적 위험감수에 대한 명시적 표현 부분입니다.) is often lonely and filled with

danger.(외롭고 위험? 아하! 이 철학자 등은 외롭고 위험으로 가득한 여정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답을 구했

던 사람들이군요! 이 지점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명확합니다!)

▶ But(그런데, but? 이진 뭔가요?) if successful, the true hero is able to

attain a new level of insight or way of being,(성공한다면 새로운 수준에 도달 것

이고) which upon return to society, he or she can share with

everyone who is capable of receiving it.(이것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한다! But이 나

와서 긴장했지만 ‘철학자 등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한다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맥락이므로 앞에서 얻은 정답의 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In this way, through the work and _____ of creative

individuals, our world view is constantly being expanded,

rewoven, and enriched.

* BE[Blank Element: 근거를 정리하여 빈칸에 들어갈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

↓

① intuition(직관이란 것은 insight와 비슷한 것으로 이 지문에선 X의 영역이 아니라 Y의 영역입니다.)

② sacrifice 정답입니다.

영어 영역

- ~~③criticism~~
- ~~④adaptation~~
- ~~⑤selfishness~~

32.



* RT

: If circumstances and temperament allow,(일정한 조건 하에서!) we then build on these questions(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성장한다! [이러한 질문들 → 성장]의 구도가 일단 형성됩니다.) during adulthood, our curiosity encompassing more and more of the world(세상을 좀 더 포괄하면 서) until, at some point, we may reach that elusive(너무 어려운 단어이므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stage where we _____.



이러한 질문들 → 성장하여 () 정도까지 도달

* CP

▶ Curiosity **might be pictured as**(→) being made up of chains of small questions extending outwards, sometimes over huge distances, from a central hub composed of a few blunt, large questions.([호기심 → 밖으로 향하는 작은 질문들의 연속]의 구도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므로 필자의 생각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 In childhood we ask: ‘Why is there good and evil?’ ‘How does nature work?’ ‘Why am I me?’(작은 질문들의 예시!)

▶ If circumstances and temperament allow, we then build on these questions(아하! 작은 질문들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군요!) during adulthood, our curiosity encompassing more and more of the world until, at some point, we may reach that elusive stage where we _____.(정답의 근거는 뒤에서 찾아야 겠군요.)

▶ The blunt large questions become connected to smaller, apparently esoteric ones.(그 질문들이 서로 연결된답니다.)

▶ We end up(‘결국 ~하게 되다’라는 말과 until~이하는 같은 말이므로 정답의 근거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ondering about flies(파리들?) on the sides of mountains or about a particular fresco(벽화?) on the wall of a sixteenth-century palace.(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We start to care about the foreign policy of a long-dead Iberian monarch or about the role of peat in the Thirty Years War.(아하! ‘이런 것까지 궁금해한다’는 말이군요! 예시를 읽을 땐 구체적인 단어와 표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예시맥락 전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서술을 추상화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 BE

: 예시 맥락의 전체의 취지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궁금해한다’는 것이므로

정답의 근거는



이러한 질문들 → (사소한 것까지 궁금해 하는) 정도까지 도달

~~①recall the childhood~~

~~②come to a dead end~~

③ are bored by nothing 정답입니다.

~~④find something complicated~~

~~⑤are tired of too much thoughts~~

33.



* RT[Relevance Thinking: 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과정]

: The strength of a person’s spirit would then **be measured by**(←) _____, or more precisely(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앞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_____, to what extent he needs to have it diluted, disguised, sweetened, muted, falsified.(그것을 희석하고 기만하는 등을 할 필요성의 정도? 즉, 왜곡하는 정도까지 측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빈칸은 비슷한 취지일 것이 예상됩니다.)



() → 영혼의 강인함을 결정
≡ 그것을 왜곡하는 정도

* CP[Context & Paraphrasing: 관계항의 시각으로 맥락을 통해 대용어들을 파악하는 과정]

▶ No one will very easily hold a doctrine to be true merely **because**(←) it makes us happy or virtuous,([행복과 미덕 → 진실이라는 주장 X]의 구도입니다.) except those dear ‘idealists’ who rhapsodize about goodness, truth, beauty, and let all sorts of eye-catching, obvious, and good-natured wishful thoughts swim around together in their pond.

▶ Happiness and virtue cannot be used as arguments.(동일한 취지입니다.)

▶ But we like to forget, even the thoughtful spirits among us, that whatever makes us unhappy or evil can no more be used as (→) a counter-argument.([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 반대주장 X]입니다. 여기의 주장은 앞에서 언급된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즉, hold a doctrine to be tru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강령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앞 문장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 Something might be true, **even if** it were also harmful and dangerous in the highest degree;(even if나 regardless of같은 양보적 표현은 양쪽의 변수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해로울지라도 진실일 수 있다.’ 즉, 해로움과 이로움은 진실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도 앞의 말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deed**, it might be part of the essential nature of existence that(존재의 필수적 본질이라고 합니다.) **to understand it**(그것이 진실임을 이해하는 것은) **completely would lead to our own destruction**.(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편한 진실의 수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전체로 빈칸의 문장까지 도달했습니다.)

영어 영역

▶ The strength of a person’s spirit would then be measured by _____, or more precisely, to what extent he needs to have it diluted, disguised, sweetened, muted, falsified.

* BE

* 이해가 쉽도록 문제지에 동봉된 해설지의 설명을 여기에 추가하여 설명합니다.

이 글은 행복과 미덕은 진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빈칸부분은 ‘사람의 영혼의 강함’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빈칸 앞 문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답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에서 이어진 맥락을 보면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편한 진실도 진실일 수 있음을 말하므로, 이를 빈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혼의 강함’을 측정하는 기준과 연결한다면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칸 뒤에 ‘혹은 더 정확히’는 앞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는 힌트를 통해 ‘얼마나 그가 이것을 묵게 하고, 위장하고, 달게 하고, 변형하고, 위조할 필요가 있는 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빈칸에 와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빈칸 뒤의 문장의 취지는 ‘진실을 왜곡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도’라는 문구에 기초해 생각해보면 ‘진실을 얼마나 왜곡하지’는, 역으로 ‘진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와 같은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컨대, ‘어떤 방의 밝은 정도’는 역으로 ‘그 방의 어두운 정도’와 측정의 기준에 있어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1번, ‘how much truth he could tolerate’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how much truth he could tolerate
- ② the ability to maintain his self-esteem
- ③ how many times he overcame his fear
- ④ the ability to imagine his happiest moment
- ⑤ how positively he could reflect on his self

정답은 ①번입니다.

34.

XRYS

* RT

∴ However,(앞의 맥락과 역접입니다. 이런 경우엔 앞에서 나온 정보를 정리하여 역접의 원리(원칙과 예외 또는 반대명제)를 적용하여 추론하거나, 이 지점이 새로운 맥락의 시작이므로 이 뒤의 정보에서도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after**(←) all the available materials on the Earth’s surface, mostly iron, had combined with the free oxygen, it(= the free oxygen) _____.

↓

* CP

▶ Water molecules circulate through the atmosphere **as a result of**(←) evaporation.(↓중발 → 물 분자 대기 중 순환)

▶ **As** water molecules rise high up in the atmosphere, they may split up into their constituent chemical elements, hydrogen and oxygen, under the influence of sunlight.(↓물 분자 대기 중에 올라감 → 수소와 산

소로 분해↓)

▶ **Whereas**(시즌1에 나온 대립항의 구도를 그리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the much heavier oxygen either remains in the atmosphere or is captured on the Earth’s surface,(B: [무거운 산소 → 대기 중에 남음 or 지표에 갇힘] 여기서 oxygen is captured on the Earth’s surface부분은 빈칸의 after이하 부분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the hydrogen tends to escape into space, because it is so light that Earth’s gravity cannot retain it.(A: [가벼운 수소 → 우주로 날아감])

▶ **As long as**(←) there was little or no free oxygen in the atmosphere that could capture hydrogen before it escaped into the cosmos, this process would have continued unhindered.(↓산소가 없다 → 수소가 계속 날아감] = [산소가 있다 → 수소가 날아가지 못함])

▶ **However**,(앞의 맥락을 참고해 역접을 적용해보면 이후에는 ‘수소가 우주로 날아가는 과정이 방해받 는’ 내용이 예상됩니다.) after all the available materials on the Earth’s surface, mostly iron, had combined with the free oxygen, it _____.(it은 산소이므로 앞에서 산소에 대해 얻어진 정보(산소는 지표와 결합하거나 대기 중에 남음)를 after이하의 내용(산소가 지표의 물질들과 결합)에 적용해보면 빈칸은 ‘산소가 대기 중에 남음’이 됩니다. 산소가 대기에 남으면 다시 수소와 결합될 것이므로 수소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However에서 예측된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산소가 대기 중에 남음’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s soon as this happened**(빈칸의 내용(= 산소가 대기 중에 남음)이 일어나자마자), the free oxygen would have captured most of the free hydrogen by forming water molecules again(수소와 결합한다! 수소의 우주로 날아감을 방해한 다!), thus slowing down the loss of hydrogen.(정답의 근거가 확실하므로 바로 선 지로 들어갑니다)

▶ Over the course of time, this process would have helped to retain water on Earth, while it also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oxygen in the atmosphere.

* BE

↓

지표의 물질들과 결합 → 그 산소는 (대기 중에 남음)

- ① tried to catch ~~whatever~~ it met around 지표의 모든 물질들과 결합했으므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수소뿐입니다.
- ② stayed there waiting for the free hydrogen there은 지표를 가리킵니다. 정답의 근거 산소가 ‘대기 중에 있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네요. 빈칸추론은 정답의 근거를 찾았더라도 전지부분에서 정답의 근거와 1대1 대응을 시켜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게 요소와 방향을 모두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 ③ no longer waited for the ~~free oxygen~~ to unite
- ④ continued to capture ~~other than the free hydrogen~~
- ⑤ began to appear(나타남) in the atmosphere(대기 중에) in sizable quantities

⑤번이 정답입니다.

영어 영역



무관한 문장 유형 풀이법

글의 맥락 속에서 $X \rightarrow Y$ 의 구도가 깨지는 문장을 찾는 것이 이 문항의 본질입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글의 도입부터 X, Y 두 가지 요소와 그들의 관계인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찾은 후, 이 요소들이 서로 대응되는지를 확인하며 내려갑니다. 이 때 고려할 것이 맥락입니다. X, Y의 관계가 순접인지 역접인지 확인하고 해당 문장이 맥락과 일치하는지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X \rightarrow Y$ 의 구도가 깨지는 부분이나, 구도가 맞더라도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나타나면 오답의 심증을 형성해야 합니다. 문제된 문장의 다음 문장을 읽고, 앞문장과 연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된 문장이 앞-뒤 문장 사이의 연결성(응집성)에 의해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정답입니다.

35.

▶ In natural ecosystems, nutrients tend to be conserved in soil organic matter and plant and animal tissues.([자연생태계: 영양소 \rightarrow ~방식으로 흙에 저장됨])

▶ ① The nutrients are used over and over again by different organisms as they flow through a cycle that includes plant and animal growth—which takes essential nutrients from the soil, uses them in growth and maintenance and returns them to the soil in waste products and through death and decomposition.(영양소의 분해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어집니다.)

▶ ② The nutrients in plant and animal wastes cannot be reused until(\leftarrow) soil decomposition processes release them in a form available to plants.([흙 분해 과정이 그것들을 식물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형태로 배출 \rightarrow 재사용 가능]의 구도가 됩니다.)

▶ ③ Throughout the decomposition processes, however, the wastes can give off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which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living organisms around.([흙 분해 과정 \rightarrow 유해가스 배출]의 구도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흐름에 문제는 없습니다.)

▶ ④ In natural systems, this cycling(이러한 순환이 앞 문장에 있었나요? Throughout the decomposition processes 이하가 순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of nutrients between plants, animals and the soil is extremely conservative and few nutrients are lost.([이러한 순환 \rightarrow 보존성이 강함]의 구도가 됩니다. 앞의 ③과 비교하여 뭔가 맞지 않습니다. ③은 ②와 역접인데, ④는 ③과 맞지 않고 ②와 연결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②와 ③ 중 어느 하나는 틀린 문장이므로 ⑤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⑤ However(앞 문장과 역접이라고 하니 뒤의 내용과 역접을 이루는 문장을 찾으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the very purpose of agroecosystems—to produce harvested materials—makes(\rightarrow) nutrient conservation more challenging([바로 그 목적 \rightarrow 더 어렵게 한다!]의 구도로서 However와 이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추론 종합해보면 ⑤의 앞에는 ④가 오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However에 의해 ⑤의 앞에는 이 문장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하고 ⑤의 내용은 더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and essential nutrients are lost from the system through a number of pathways, both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정리하면, 3번 문장은 그 자체로 **바로 앞문장과 연결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어지는 맥락(또는 지문 전체)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무관한 문장은 보통 $S \rightarrow V$ 나 $X \rightarrow Y$ 의 구도가 맥락을 타고 가다가 $X \rightarrow Z$ 나 $W \rightarrow Y$ 식으로 소재에서 탈락하는 형태로 출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난이도를 높인다면 이번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TEAM 유정우 모의고사 시즌2 출간 이후 출제된 이번 10월 모의고사 35번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등장하였습니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유형 풀이법

이 유형은 여러분이 가진 독해실력(대명사, 대용, 질답 대응, 연결사, 기승전결의 서사구조를 순서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유형입니다. 단락간의 순서를 맞추는 퍼즐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여 이어질 1번 단락을 찾습니다. 다시 1번에 이어질 2번 단락을 찾습니다.

지칭(대명사와 대용의 연결), 대응(질문과 답변의 대응), 연결(연결사 정보), 서사(사건의 흐름) 정보 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단락의 연결은 앞-뒤, 뒤-앞의 연결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뒤에 연결될 (A)(B)(C)의 앞부분을 맞추어 보고, 그 이후 단락은 뒤 \rightarrow 앞 혹은 앞 \rightarrow 뒤의 연결성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은 의미적인 부분(요지 또는 관계항)과 표면적인 부분(지칭, 대응, 연결, 서사)을 모두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느린 호흡으로 꼼꼼히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며 순서를 맞추도록 하세요.

36.

A well-thought-out written educational plan **helps**(\rightarrow) parents and teachers ensure that a gifted child will receive consistent curriculum and school instruction that is geared to his academic ability and potential, rather than instruction directed to abilities and potentials of students who learn more slowly.([잘 고안된 교육 계획 \rightarrow 재능 있는 아이가 그의 능력을 발전시킬 일관된 커리큘럼을 습득함])

(A) Future Olympic swimmers(주어진 단락과 전혀 다른 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시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어진 문장은 주장 부분이므로 이 맥락이 주어진 맥락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을 찾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 지점에서 멈추고 (B)로 넘어갑니다.) aren’t

(B) Without an appropriate educational plan(A well-thought-out written educational plan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gifted children often lose their excitement for learning(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흥미를 잃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주어진 문장을 재진술하는 것으로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예시이므로 주장(진술 - 재진술) - 예시의 구도를 생각한다면 (B)가 1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ecause they must wait—sometimes for many years—so that others can learn what the children with advanced development already know.

(C) **This**(앞 맥락을 지칭합니다.) is not appropriate education.(적절한 교육이 아닌 것이 바로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B)와 연결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B)에서 because절은 부연설명을 말하는 절일뿐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주절인데, This가리키는 내용이 ‘적절한 계획이 없어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흥미를 잃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Gifted children have the right to be given schoolwork that is motivating and challenging. Asking them to “slow down while others catch up” is not fair to them.(B \rightarrow C의 순서라면 C와 A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C)의 뒷부분인 ‘기다리라고 하는 것 \rightarrow 공

영어 영역

정하지 않다’와 (A)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Future Olympic swimmers aren’t asked to sit idly on the side and wait while other swimmers practice the basic strokes. **Yet** too often, bright children are required to passively wait for others to finish the lesson before they are allowed to go on.((A) 맥락 전체가 하나의 취지를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 문장에선 미래의 올림픽 선수급은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지 않지만 (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능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다는 말은 Yet을 기준으로 앞 문장이 양보절로 기능하고 뒷문장이 마치 이 앞 문장의 수식을 받는 주절처럼 기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맥락의 중심 문장은 뒷부분이고 그 내용은 (C)의 뒷부분과 일치하므로 (C)-(A)의 연결성은 확실합니다.)

정답은 (B)-(C)-(A)입니다.

37.

Chess has a rating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a player’s “strength.” If you win a tournament game,(승리하면) your rating goes up(등수가 올라가고) , and if you lose a game,(지면) your rating goes down.(떨어진다)

(A) The magnitude of their **overconfidence**(주어진 문장에 ‘과도한 자신감’에 대한 것이 없으므로 1번에서 탈락합니다.) in their own playing ability was stunning.

(B) In a study,(연구·조사는 예시와 마찬가지로 앞의 주장을 보강하는 맥락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하나의 완결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조사문으로 시작하는 (B)는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C) However,(역접이므로 뒤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와야 합니다.) repeated studies(반복된 조사들? 과학의 특징인 반복가능성을 생각하면 강력한 실증적 증거라는 의미로 이해하거나 앞에 이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나 주장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연구·조사를 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howed that the most likely outcome of a match against a player with the same rating as their own would be a tie.([같은 등수 → 같은 등위]의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연결사 However를 이용하여 역으로 추론하면 앞에는 이 내용과 반대인 [같은 등수 → 다른 등위]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문장은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진다는 당연한 말을 할 뿐이지 [같은 등수 → 다른 등위]와 유사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이 지점에서선 (B)가 1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In a study, researchers asked chess players a question: “What do you think your rating should be to reflect your current true strength?”(질문과 답변은 하나로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Interestingly, three quarters of the respondents didn’t think their current rating reflected their truth strength.([현재의 등위 → 자신들의 실력을 반영 X라고 생각], 어? 이것은 (A)의 앞에 있던 overconfidence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B)-(A)의 연결성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C)의 위치가 1인지 3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A) The magnitude of their overconfidence in their own playing ability was stunning.((B)-(A)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These players believed that they would win a match against another player with the exact same rating as their own by a two-to-one margin — a crushing victory.(동일한 등위여도 2-1로 이길 것이다! 과도한 자신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C)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답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B-A-C입니다.



삽입 유형 풀이법

문장삽입 문항은 우선 ①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여 앞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앞의 문장을 제외한 모든 문장에는 앞 문장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앞에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지 추론해야 합니다. ②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염두에 두고, 맥락에 빈틈이 생기는 부분을 찾아 앞뒤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삽입 유형은 최근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빈칸추론만큼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38.

Active(적극적 청자란 소극적 청자와 대립합니다. 별다른 대립의 장치가 없지만 이와 같은 대립항의 구도가 이어질 것을 예측하며 읽어가야 합니다. Active라는 단어를 무심코 쓴 말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listeners might hear between the words, **noting**(~하면서의 의미에 주목하면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the speaker’s deep intake of breath before she responds(수능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expression에 대한 verbal vs non-verbal의 대립을 안다면 이 부분은 nonverbal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or slight shrug of the shoulders.(정리하면 A[적극적 청자: 비언어적 표현 → 행간을 읽음(= 의사소통이 잘 됨)]의 구도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항은 B[소극적 청자: 언어적 표현? → 행간을 읽지 못함(= 의사소통이 잘 안됨)]입니다.)

▶ Most of us are typically used to listening and being listened to on a fairly surface level.(대립항 B가 바로 등장하네요.)

▶ We don’t pay much attention to(주목하지 않는 소극적 청자를 의미하므로 대립항 B의 영역입니다. Active listeners와 대립되는 소극적 청자와 We는 같은 사람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what is not being said, pick up on subtle incongruities in speech, nor hear the emotion behind a person’s words unless it is obvious and clear.

▶ (①) Consider(소극적 청자에 대한 서술에 이어 예시의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문장은 최소, 이 예시의 맥락이 끝난 이후의 지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a client who tells us that she is excited to be moving house and living in a new city.

▶ (②) We hear the words and respond **accordingly**(이는 앞에서 a client가 tells하는 대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니 이 부분은 비언어 vs 언어의 대립항도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lling the person how happy we are for her and what a great adventure she will have.

▶ (③) They(그들이 우리일지 적극적 청자일지는 이후의 서술어의 취지를 보아야 합니다.) might hear the slightly pensive tone(비언어적 표현이므로 they는 we가 아니라 주어진 문장의 Active listeners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or note the look in her eyes, which indicates that although the move might be exciting, there are other emotions at play. (④) Perhaps she is frightened about taking such a big step, or cautious about leaving friends and family behind. (⑤) The active listener hears her words, and notes the other information she is communicating, and can therefore respond on a deeper level.

I simply assume that **it** (앞에는 디자인을 가질만한 무언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has a particular design — the design we call an alarm clock (앞에는 시계 또는 시계의 디자인이 등장하는군요) — **and** (→) (and가 문장이나 동사로 연결되는 경우엔 선후관계이고 이는 다시 인과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that it will function properly, as designed.** (‘[디자인 → 기능]이라고 가정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앞뒤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힌트를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가면서 정리된 내용과 계속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larm clocks, being designed objects (unlike the rock), are amenable to a fancier style of **prediction** (이는 주어진 문장의 assume과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한다. 추정하다’는 말과 ‘예언한다’는 말은 모두 ‘장차 그러할 것이라는 예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prediction from** (←) **the design stance.** ([디자인 → 예측]의 구도가 첫 문장부터 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시계의 디자인 → 기능 예측]을 담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① 예측의 내용인 기능에 대한 말이 나오고, ② 이어서 시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e design stance is a wonderful shortcut, which we all use all the time. (아직 기능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①) Suppose (예시!) someone gives me a new digital alarm clock. (시계가 등장하네요!) (②) It is a model that is quite novel to me, but a brief examination of its exterior buttons and displays **convinces** (→) me that if I depress a few buttons just so, then some hours later the alarm clock will make a loud noise. ([시계의 디자인 → 시계의 기능]의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 I **don't know** (not A, but B의 시작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I simply assume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what kind of noise it will be,**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but it will be sufficient to awaken me.** (‘날 깨우기엔’, 즉 시계의 기능을 하기엔 충분하다! 여기서 sufficient to awaken me에 주목하여 it을 보면 앞의 a loud noise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문장과의 응집성과 not A, but B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곳에 들어가기는 애매합니다.) (④) I **don't need to** (앞 문장과 같은 내용의 재진술이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5가 유력합니다.) **work out the specific physical laws that explain this marvelous regularity; nor do I have to take the thing apart, weighing its parts and measuring the voltages.** (⑤) I'm prepared to risk quite a lot on **this prediction** (이 예측이란 주어진 문장의 assume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not my life, perhaps, but my waking up in time to get to my scheduled lecture or catch a train.